

#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

## -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-

※ 시행일 '22. 7. 11.(월)

### < 주요 변동사항 >

-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,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
- (재택치료비)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\*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
  - \* '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: 의원급 1.3만원(건보공단), 약국 6천원 정도 발생
  - \*\* 단,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
  -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, 앱 지불(굿닥 등),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음
- (입원치료비) 상대적으로 고액\*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,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(1인실 사용)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
  - \* '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: 경증 9.1만원, 중등증 72.4만원, 중증 228.2만원(건보공단)
- 다만,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

### < 재정지원 개편 전·후 비교 >

구분	현행	개편안
치료비	재택치료비	본인부담 지원
	입원치료비	본인부담 지원 유지

#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관련 질의·답변

※ '22. 7. 10. 19시 기준

요청·건의 사항	검토 의견
▶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시 처방을 많이 내는데 약값은 본인부담 발생하는 걸로 안내하면 될까요?	▶ 집중관리군의 약제비는 지원 안 됨 * 단, 팩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하되, 팩스로비드 처방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본인부담
▶ (안동시) 의료상담센터도 현행 유지 맞나요?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에 전화상담관리료 +비대면 진료 후 처방 시 진찰료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쭙습니다.	▶ 의료상담센터는 현행 유지 ▶ 집중관리군 모니터링(환자관리료) 외 재택치료 진료, 처방 관련 본인부담금은 발생 - 단, 먹는 치료제, 주사제 등은 지속 예산 지원
▶ 모니터링(의료상담 및 처방 포함) - 집중관리군 선정 후 모니터링 1회 받으면서 처방을 받음(모니터링에 포함되므로 처방 혹은 진료시 본인부담금 발생X) - 약제비는 발생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?	▶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 환자관리료에는 건강모니터링, 전화상담 및 처방이 포함되므로, 질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-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면,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, 그 외 약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
▶ 수가는 월요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확인 가능한거죠?	▶ 수가 변동사항은 없음
▶ 공지 내용만 의료기관에 안내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. 지침은 언제 올려줄 수 있는지요?	▶ 방대본 확인 중
▶ 응급의료센터도 예외없이 전액 본인부담인가요? 응급실 방문 후 입원하는 경우 응급실 비용은 본인부담, 입원료만 지원되나요?	▶ 집중관리군 모니터링(환자관리료) 외 재택치료 진료, 처방 관련 본인부담금은 발생 - 따라서,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금 여부는 확인 되는대로 신속 안내 예정
▶ 7월 10일 일요일 RAT검사 결과 양성되어 10일 확진되었지만, 의료기관 신고가 늦어져 보건소에서 격리통지가 11일로 된 경우 이 대상자는 격리통지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?	▶ 격리통지 기준은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기산하면 됨
▶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맥락으로, 호흡기 진료센터 방문하여 대면진료한 후 자체 입원한 경우 대면진료에 대한 비용만 본인부담으로 보면 될까요?	▶ 외래 진료 본인부담 측면에서, 대면진료에 대한 비용만 본인부담 하는 것이 맞음

요청·건의 사항	검토 의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월 11일 이전 확진자들은 본인부담금 발생X</li> <li>- 7월 11일 확진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, 다만, 집중관리군은 7월말까지 집중관리의료기관에 의료상담 시 본인부담금 발생없고, 그 외 대면진료나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발생이 맞나요?</li> <li>▶ 7월 11일부터 기존 확진자도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건 아니죠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월11일 격리통지자부터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외 모든 비용(약제비, 진료비, 응급실 등)이 본인부담으로 보면 되나요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집중관리군 모니터링(환자관리료) 외 재택치료 진료, 처방 관련 본인부담금은 발생</li> <li>- 단, 먹는 치료제, 주사제 등은 지속 예산 지원되지만, 그 외 약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</li> <li>- 응급실 이용의 경우 추후 확인 확인 안내 예정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가 변경된다면, 그 기준은 뭔가요? 1회/1일 유선 모니터링이 수가인데,,, 저회도 공급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가 변동사항은 없음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격리통지일 확인 관련해서, 비대면진료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? 의료기관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라고 하면 불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.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</li> <li>-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RAT는 검사당일 병원에서 양성 통지되어 격리중이라, 격리통지시 검사날짜를 반영하는데,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지 않나요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비대면이라도 확진자인지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.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지원대상인지, 환자에게 청구해야하는지를 판단하는데, 시스템이 아닌 구두로, 또는 문자로만 확진일을 확인하고 처리하진 않을 듯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</li> <li>-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재택치료비 중단 관련해서, 기준을 격리통지일 보다는 검체채취일 기준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. 격리통지일일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할 듯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</li> </ul>

요청·건의 사항	검토 의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RAT인 경우는 바로 결과가 나오지만, PCR은 결과가 당일 나오는 곳도 있고,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또한 타지역에서 뒤늦게 넘어오거나 의료기관 신고 누락되어 뒤늦게 통지될 수도 있습니다. 비용 관련으로 민원소지가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.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격리통지일 보다는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장에서 구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.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DUR에서도 검체채취일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.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청구할텐데 심평원에서는 언제자 확진자인지 어떻게 알아서 거를까도 의문입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보험급여과-3457호('22.7.8.) 「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」에 따르면, 변경 내용은 '22.7.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 환자에게 적용하고, 요양급여 청구는 '22. 7. 25.부터 가능하다고 명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자체에서만 이려고 발동등하고 이를 거예요. 당장 의료기관에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더 걱정이네요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의료기관에는 병협,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월요일 아침부터 의료기관 및 민원인 문의 전화 많을 것 같습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병협, 의협, 약사회 등에는 상기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, 심평원 홈페이지-업무포털 란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재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료기관과 약국이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료프로그램이나 건강보험공단, 심평원 등에서 팝업 메시지 송출할 수 있도록 협조 조치 부탁드립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의료기관에는 병협,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그냥 언제 확진된 거 상관 없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적용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7월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? 예를 들어 7월 9일 격리통지 받은 확진자가 7월 9일에 처방 받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7월 11일에 다시 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 발생으로요!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렇게 해야 일선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병원에서 보건소에 일일이 확인을 하나요?</li> </ul>	

요청·건의 사항	검토 의견
▶ 약제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?	▶ 집중관리군의 약제비는 지원 안 됨 * 단, 파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하되, 파스로비드 처방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본인부담
▶ 확진 여부가 “확인이 안 되는 경우”에 구두로 확인하는 것이고, 확진을 거짓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DUR에 안뜨는데 확진자인지 확인해 달라고 여전히 병원에서 보건소로 전화 많이 오구요, 지금은 하루 차이로 돈을 내니, 안내니의 문제 인데, 이걸 구두로만 확인하려고 하시면, 현장에서 많이 힘이 듭니다.	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-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
▶ 파스로비드도 본인부담금 발생하나요?	▶ 발생하지 않음
▶ 투석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도 변경되는 것이 있나요?	▶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원 지속
▶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지원 유지이면 본인부담금이 현재처럼 심평원으로 청구하라고 하면 되나요?	▶ 변동사항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청구하면 됨
▶ 의료기관 문의입니다.  재택치료자 처방시 전화상담 관리료 코드 AH271, 273 등은 기존처럼 병도, 재택치료군으로 설정 안 했을 때 또는 본인부담금은 그대로 환자에게 수납하면 되나요?  아니면, 재택치료 설정 따로 안 해도 알아서 본인부담금이 뜨는지요?	▶ 별도 확인 후 안내 예정
▶ 확진자가 응급실 통해 입원까지한 경우 응급실 처치 관련 비용은 환자부담, 이후 입원하여 처치 받은 진료비에 관해서만 지원인가요?	▶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금 여부 추후 안내 예정
▶ (본인부담금 질의) 7.11일자 격리통지자(확진자)부터 적용이면, 7.10일 이전 확진자는 격리 기간 동안 진료비,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데,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환자가 언제 확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진료하고 처방해야한 다는데, 이게 일선 병원, 약국에서 어떻게 확인 하나요?	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-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

요청·건의 사항	검토 의견
▶ 7.11일 “확진자(격리통지자)”라 함은 1. CDC상에 검사채취일이 7.11일인지 2. CDC상에 진단일인지 3. CDC상 신고일인지  확인 부탁드립니다.	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-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
▶ 집중관리군 환자관리로 산정시 외래진찰료는 산정불가로 알고 있습니다. 집중관리군이 재택 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후 의료기관에 수납할 본인부담금은 없으나, 약국에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될까요?	▶ 먹는 치료제의 경우 지속 지원되나, 그 외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이 발생
▶ 현재 재택치료중인분들도 7.11일 이후 진료 받으시면 본인부담금 발생한다는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. 라고 전달 받았습니. 확정인가요?	▶ 재택진료 본인부담금 발생은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적용되므로, 이전에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음
▶ 진단날짜와 신고날짜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. 격리통지자 기준이 진단날짜인가요? 아니면 신고날짜인가요?	▶ 7.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-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
▶ 지침이 내려오면,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걸가요?	▶ 홈페이지, 협회 등으로 안내